

‘연수’로 맺은 인연 ‘불자’로

기업 템플스테이 포교 호재... 프로그램 개발·시설확충 나서야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사찰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돼 오던 템플스테이가 최근 삼성SDI,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의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다.

올해 초 삼성SDI 부산공장이 통도사에서 기업연수를 한데 이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코모모 신현증권, LG투자신탁 등이 범여사와 구룡사, 내소사 등에서 기업연수를 진행하며, 기업 내 템플스테이 붐을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업체의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포교효과가 반감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즉, 템플스테이를 기업체 포교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종단과 사찰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자 양성, 대

모 인원을 수용할만한 시설확충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왜 ‘템플스테이’인가?

템플스테이는 사찰수련회와 달리 새벽예불 및 독경, 염불 등 프로그램에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따라서 불자는 물론 개신교인, 천주교인 등 다양한 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체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직원들의 신입사원 교육 및 직원연수 프로그램으로 템플스테이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산사라는 지리적 이점과 명상과 참선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의 특징들은 최근 기업연수의 흐름인 ‘자기성찰’과 맞아 떨어지며, 연수를 통해 직원들의 심신정화와 심기일전을 원하는 기업들의 목적을 충족시키고 있다.

템플스테이 연수를 기획한 현대사

동차의 이효성 씨는 “기존의 기업연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에 치중했다면, 요즘은 스스로 돌아보고 참나를 찾는 자기성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기업 템플스테이는 불자위주의 소규모 템플스테이와 달리 기업의 목적에 따라 적게는 50여명, 많게는 400~500명의 인원이 일괄적으로 참가하는 조직적 형태를 지닌다.

기업 템플스테이 참가자 절반 이상이 불교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무종교인들과 불교에 대해 거부감이 있거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타종교인이다. 따라서 템플스테이를 잘 활용하면 별도의 포교활동 없이도 사회 전반적인 불교이미지 개선과 영향력 확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찰과 기업의 연대강화를 통해 사찰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문화활동 콘텐츠 강화 등의 부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구성원들이 산업과 문화를 생산하는 주된 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포교효과를 낼 수도 있다.

해결·보완할 과제들

현재 기업 템플스테이는 기업체 개별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교계는 템플스테이 등 좋은 포교 콘텐츠를 가지고도 ‘좋은이까 찾아오겠지’ 하는 수동적 인 생각으로 기업체와 공공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조계종이 주5일제 근무를 대비해 지난 5월 한국불교전통문화사업단을 발족하고 템플스테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방안 마련은 미흡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템플스테이를 운영·사찰 관계자들과 기업체 직원연수 관련 담당자들은 기업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전략은 물론, 기업의 교육 및 연수 목적에 맞는 별도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템플스테이를 활용한 기업연수가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산돼 나가려면, 고화력과 타종교인이 다수인 참가 구성원들의 특징과 위계체제가 분명한 기업조직체의 특징 등이 프로그램에 적절히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참가자 성향에 맞춰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과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확충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불교전통문화사업단의 운영회 총괄팀장은 “종단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사찰들은 마곡사 등 템플스테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찰들을 벤치마킹해 개별 사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ipck@buddhapia.com

社 告

제10회 신행수기 공모에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 마감 12월 15일

명실공히 교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온 현대 불교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쫓겨 담겨있던 감동 깊은 수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귀중한 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큰 지요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인위(4지 4장)
- 당선작 발표: 2005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및 부타뉴스(www.buddhanews.com)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ihatsivhy@buddhapia.com (성명 및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십시오)

■ 시상내역

▷대상(유마상) ▷우수상(본사 사장상)

▷특별상

- 종단협의회회장상 - 태고종 총무원장상
- 원대종 총무원장상 - 관음종 총무원장상
- 총화종 총무원장상 -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 신수회장상

*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만) 액서를 각각 수여합니다.
* 10~11월 두 달간 현대불교신문과 부타뉴스를 통해 수필가 명랑자 선정(수필문학발행인)의 ‘수기 쓰기 이렇게’를 연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 달라져야 한다’ 원고 모집

독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불교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불교계 곳곳의 고질병에 할 말은 없습니까? 한국불교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보내주세요.

■ 원고량: 200자 원고지 10매
■ 접수 마감: 9월 30일

■ 접수: 우편 (110-170)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 bypark@buddhapia.com
■ 문의전화: 02)722-4162
*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사자암 3층 석탑 “보물급” 전북도 훼손 심해 “지정 못해” 지난달 옥개석 발굴후 ‘가치판단’ 엇갈려

보물급 유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의 사자암 3층 석탑(전북 익산)이 사장 위기에 처해 있다. 이 탑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3년. 하지만 10년이 넘게 관할 지자체의 무관심과 허술한 문화재 관리 및 보존대책 등으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방치되고 있는 사자암 3층 석탑의 옥개석(점선안).

이러한 사실은 지난 8월 20일 대웅전 기단공사 중 연꽃문양이 새겨진 옥개석이 돌더미 속에서 다시 발견됨으로써 드러났다. 이 옥개석은 1993년 이 절 요사채 불사 중 이미 출토되었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희박하다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다시 묻어뒀던 것이다. 이 옥개석을 발견한 사자암 관계자는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8월 23일 석탑전문가인 원광대 전 총장 김삼룡

박사와 단국대 박물관장 정영호 교수 등 5명에게 조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남문화재위원은 “다시 발견된 이 옥개석은 사자암 3층 석탑의 1층부의 것이 확실하고, 잊혀졌던 문화재적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 석탑은 도피안사 3층 석탑(보물 제223호)의 기단부 8각모양 탑신과 같은 형태로서 보물급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신기사 가는 대웅전 목재들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신기사 대웅전 복원공사에 사용될 목재를 실은 차량들이 9월 17일 금강산을 향해 출발했다. 목재들은 금강산 현지에서 조립될 예정이며, 대웅전은 11월 19일 완공된다. 여주=고영배 기자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순’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 060-700-1080

‘할’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곱다 밋다 싫새없이 차별과 분별을 합니다

그런 잔머리 굴려 가지곤 불성이라 할수 없죠

그림·조태호

인환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불교서적의 요람으로 불자들에게 함께한 10년! 여시아문은 여러분의 개인 법당입니다.

Hot! 국내 모든 불서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주문으로 빠르게 받아본다!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책방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여러분의 개인 법당입니다.

불교의 기초부터, 선지식 이야기까지!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여시아문’과 만나십시오

“여시아문 책방은 불교적으로 장엄된 장경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넓은 공간으로 책 구하기가 편리하고 모든 정보가 전신처리 되어 편리하죠. 특히 장서의 진열도 출간연대로 구분해 있어 나온 지 오래된 회귀본도 만날 수 있더라고요.”

불교TV 콘스님과 대담 프로그램 ‘달의 밤’ 진행자였던 중진 판화가 황남채씨는 여시아문을 사랑하는 단골 고객의 한 사람이다.

교계 신문에 나온 ‘불서 베스트 셀러’ 집계를 참고로 여시아문 매장에서 직접 책을 보면서 고르고 있다는 황씨는 불서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미술, 여행, 건강 분야의 책들도 즐겨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황남채씨 (판화가)

불교 서적 전문서점인 ‘여시아문’은 1994년 8월 24일 전문매장을 오픈하였으며 첨단시대에 발맞추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온라인 여시아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30,000여 종의 불교서적 타이틀을 약 80,000여 권을 구비하여 불자들이 필요로 하는 불교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현대불교신문사의 출판부와 불교서적센터를 운영하여 도서출판 및 도서관리 그리고 도서유통까지 통합업무 운영을 통해 올바른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책방 여시아문 약도

인터넷 도서주문 **yosiamun.com**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별공양 상담합니다>